

# 목양칼럼

##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미국의 50번째 주(州)인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와이 주(州)의 수도 호놀룰루는 오후아 섬에 있고, 코나 열방 대학은 하와이 주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몇 년 전 코나 열방 대학에서 진행하는 한인 목회자 제자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업 장소는 야외였고 바다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많은 찬송 중에 가장 격한 눈물 가운데 부른 찬송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였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보이는 바다에 거친 파도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보면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를 품으시고 나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히 느꼈습니다.

저는 압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파도는 저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을.  
 폭풍우 때문에 떨지 않고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거친 폭풍우 위에서 잠잠히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신은 (646)220-8324	<b>다민족선교사</b>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O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중국어부 (929)204-6868	홍현숙/서무 (201)759-0820
<b>직원</b> 정진규/관리 (646)551-7255	Shen de Guia/OPEM
<b>찬양대</b>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김보라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윤원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운 임세현



주후 2017년 7월 16일  
 제 43-29호

##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70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용생 장로 2부 / 정길표 장로 3부 / 이무근 장로 4부 / 김수산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이사야 63:7-14	사회자
찬양 CHORUS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주 나는 예배자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질문 있습니다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91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505/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 주일 저녁 예배

오후 4:00 (7/16/17)	사회: 송요한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302	다같이
기도	최원일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 사도행전 8:1-8

찬양	찬양대
말씀	송요한 목사

### 큰 울음에서 큰 기쁨으로

찬송 497	다같이
광고	사회자
찬송 508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Galatians 5:16-25	
Prayer	Dn. Jonathan Hong
Sermon	Rev. Peter D. Kim

### "A Gospel Shaped Church"

##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В. Левченко
Деяния(Ас.) 8:1-8	
Молитва	Т. Рахметов
Проповедь	Владимир Сон
От великого плача к великой радости	

##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7/19/17)	사회: 김재형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 여호수아(书)1:1-8

찬양	찬양대
말씀	첸위지 전도사

### “起来！进迦南”

### Rise, enter Canaan.

찬송 358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김재형 목사

##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0:17-28	
证道	陈玉捷传道
天国上位的方法	

## 새가족 환영회

제 5과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

Remnant Church, 7/22(토) 오전 10시-오후 5시

## 단기 선교팀 파송

인디안 보호구역 (7/21-28),  
온두라스 실버 (7/22-29)

## 교회소식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7/21(금) 인디안 보호구역 단기선교(7/21-28)	7/22(토) 온두라스 실버 단기선교(7/22-29)
7/23(주) 중국 단기선교(7/23-8/3)	7/26(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7/31(월) 인디아 단기선교(7/31-8/12)	8/4(금) 에디오피아 단기선교(8/4-18)

### 알림

1. 가정예배와 성경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2. 단기선교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출발: 인디안 보호구역(21일), 온두라스 실버(22일)  
\*2017년도 선교 지역: 캄보디아 (7/12-22), 니카라과 (7/14-23), 온두라스 (7/15-22), 중국 (7/23-8/3), 인디아 (7/31-8/12), 에디오피아 (8/4-18), 할렘 (8/29)
3.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 안내 일일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는 뉴욕총력전도에 많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최: 국제도시선교회 2) 일시: 7/22(토) 오전 10시 (교회에서 오전 8:45에 출발합니다.)  
3) 장소: Remnant Church (206E 29st, NY 10016) 4) 문의: 오인수 목사
4. 가스펠 스타C 시즌 7 안내 찬양 사역자의 등용문인 가스펠 스타 미주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찬양 사역을 꿈꾸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주관: 퀸즈장로교회, 단비기독교TV  
2) 주최: C채널, 아가페문화재단 3) 접수기간: 8/19(토)까지  
4) 상금: 미주대회 대상 \$5,000(+한국 본선 대상 \$10,000) 5) 문의: 윤원상 전도사, 단비기독교TV
5. 제2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Summer Music Camp 안내  
1) 일시: 8/22(화)-25(금) 2) 장소: 퀸즈장로교회 3)문의: 최효진 권사, 김미연 집사
6. 제자훈련 제 7기 제자훈련생 및 리더를 모집합니다. 1) 신청마감: 8/20(주).  
2) 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3) 일시: 9/7(목)부터 14주간, 오후 8-10시  
4) 리더모집: 7/30(주)까지, 영성훈련 수료자로 소정의 과정을 거친 후 리더로 섬기게 됩니다.
7. 여름철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 7/22(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청년 대학부 (다음주: 청년 선교부)
9. 가족기념 장학기금 이춘구 집사, 오진석, 오영자 집사, 오시영, 오로라, 이지만 집사, 이혜숙 집사

### 새가족

김성빈 (디모데 2F12, 김해월 - 에스더), 박상섭 (바울 4F6), 안웅성 (바울 3F13, 정은지 - 브리스가, 안민준 - 중등부), 오경애 (마리아 2F12), 김 훈 (디모데 2F12, 정미자 - 루디아), 안병훈 (요한 4F1), 박지수 (청년대학 1Y1)

### 교우소식

결 혼 이재현, 이단비 교우가 6/24 한국에서 결혼하였습니다.  
개 업 장창순(장지숙 집사 1F8) 집사 가정에서 '육장 소갈비' 식당을 개업하였습니다. 41-05 150st, Flushing  
소 천 박성을 (문옥필 집사 4F2) 교우의 천국환송예배가 오늘(7/16) 오후 5:30에 제미장사에서 있습니다.

### 담임 목사 동정

캄보디아, 한국, 중국사역 (7/17-7/28)

### 금식기도사

월 / 이춘자 설정애 김덕순 장은옥  
수 / 홍창분 김계순 한기덕  
금 / 최경희 김미연

주 / 이춘자 설정애 김덕순 장은옥  
화 / 김영희 장광숙 조지영  
목 / 문승재 이소영 이종환  
토 / 소유영 송요한 정해성 소철화 박연경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 출석

1부 예배	368	러시아어 예배	27	영어부	35	중등부	57
2부 예배	339	청년 선교부	88	유아부	22	고등부	50
3부 예배	342	주일 저녁 예배	20	유치부	28	청년 대학부	31
4부 예배	166	새벽 예배	1789	중국어 교육부	19	교회 학교 예배	443
영어 예배	181	수요 기도 예배	281	유년부	108	주일 낮 장년 예배	1745
중국어 예배	234	새가족 환영회	16	초등부	93	주일 낮 총계	2188

## 7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정길표 장로

헌신기도(다음주)	송동윤 장로	황인섭 장로	황주현 장로	고국환 장로
책임권사	윤지영 권사	전광인 권사	김은경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이숙규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선의 박새롬 정형진 조희주 권동은 조한결 김서희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이숙규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서희 박새롬 조희주 권동은 신예지 박재상 조한결 정형진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뱀뱀, 요한 주일식사: 루디아 (다음주: 교포부)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넷서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 이번 주의 소요리 문답

### 문 105)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463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7장 1-9절

말이 중요합니다. 명철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근신하며 자기를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에 찾아온 때를 잘 대처해야 합니다. 지혜 자는 4가지 때를 말하며 이때 특별히 음녀의 길을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9) 사람이 대낮에 죄의 길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보는 눈이 많기도 하고, 스스로도 환한 빛 아래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열하게 달렸던 낮과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 때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쉬어야겠다고, 이제 지쳤다고, 마음을 놓으려 할 때 마귀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밝은 빛 아래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스스로 주의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항상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151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7장 10-23절

음녀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텃인지도 모르고 그저 음식에 정신이 팔려서 먹을 것을 집으러 갔다가 그물에 걸려 잡히는 새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간음은 겉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울 수 있으나 필경 독이 든 사과입니다. 음녀의 길로 가는 자는 “소가 도수 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22)라고 지혜 자는 말합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절대로 이 길로 가서는 안됩니다. 새가 텃 안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알려주었으니 우리 가정이 음녀의 길이 아닌 의의 길에 굳건하게 서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147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7장 24-27절

간음에 쓰러진 자가 많습니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6)라는 지혜자의 말씀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하게 사역하던 목회자분들도 간음으로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뿐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죄야’ 라고 자신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허다하니라” 라는 말을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

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에 달려갑시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기댁시다. 우리 가정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만이 충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304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8장 1-13절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거부하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지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13a)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원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셨기에 우리도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13b).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지혜,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얻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252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8장 14-21절

혜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간절히 구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7b). 살아가면서 그토록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절박하게 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있나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정작 기도의 무릎과 눈물은 찾아보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혜 자는 먼저 질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17a)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연인이 상대방을 간절히 보기 원하듯이 하나님을,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가정되기를 축원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

###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91장 / 소요리 문답 / 잠언 8장 2-36절

지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즐겁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에 보기 좋아하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지으면서 즐거워하였고 그들을 기뻐했습니다(30-31). 지혜를 얻는 것이 은혜를 받아 혼나고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기쁨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합심 기도 / 주기도문